

사찰 VS 복지관 갈등 언제까지?

덕운사 “천혜원은 환경 파괴, 편법 설계, 국고 낭비” 천혜원 “어르신들은 절이 가까이 있어 더 좋아할 것”

부산 덕운사는 인근 사회복지법인 천혜원 노인요양원 건립과 관련해 3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 덕운사 주지 경산 스님은 4월 18일 대웅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요양원 건립 반대 입장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



부산 덕운사 경산 스님이 노인요양원이 세워질 산자락을 가르키며 건립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경산 스님은 “요양원이 들어설 경우 1807㎡ 입야에 있는 고로쇠나무 46그루, 니키다소나무 72그루, 해송 33그루 등 151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가 심각한 산림 훼손이 우려된다”며 “대웅전에서 4m 거리에 조성될 예정인 사회복지법인 천혜원(이사장 박시완) 노인요양원 건립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부산시에서 수심 100m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운산 일대 테마공원 역시 망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산 스님은 “환경조사에서 높이 50cm 이상의 나무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면 준공허가가 나지 않게 돼 있다”며 “환경조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복지법인 천혜원(이사장 박시완)은 2009년 초 금정구로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준공허가를 받았다. 신축 예정된 노인요양원과 덕운사 대웅전을 둘러싼 담장과의 거리는 불과 4m내외다. 덕운사 주지 경산 스님은 산림 훼손, 구민 편의와 불법설계,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금정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천혜원은 정부로부터 20억원 가량 정부지원금을 받아놓은 상태여서 3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노인요양원 측은 사찰을 곁에 두고 있으면 요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행복해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덕운사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시완 천혜원 이사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해당 입야는 천혜원 소유다. 애당초 부산시 금정구가 관내에 옮겨 심을 묘목을 기르기 위해 임대 중이며, 묘목은 착공 전 제3의

장소로 옮겨 심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덕운사는 “개원 이후에 범당 예불 소리를 소음이라고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산 스님은 “부산 어느 사찰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종소리가 시끄럽다며 더 이상 종을 치지 못하게 한 사례도 있다. 지금은 괜찮다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묵탁과 엽불 소리가 요양 중인 어르신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시완 이사장은 “오히려 어르신들은 절 가까이에서 엽불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할 것”이라며 “종교를 떠나 어르신들은 산 속에 자리한 절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시완 이사장에 따르면 덕운사도 복지사업을 계획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이사장은 “요양원 설계 단계부터 스님과 수차례 상의를 해왔다. 당시 스님은 덕운사도 노인복지 관련시설을 5년 후에 세울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 후에도 스님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평당 8만원의 비용을 들여 3~4차례 설계를 수정한 바 있는데, 3년 넘게 요양원 건립을 문제삼을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경산 스님은 “복지법인 입야에 요양시설을 지을 경우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이용한 야욕에 불과하다. 국가예산 20억 원을 노려 요양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이다”며 “허가가 날 경우 법적대응을 해서라도 건립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교계 한 관계자는 “덕운사와 천혜원 사이 갈등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 양측이 종교시설과 복지시설의 장점을 이용해 연계 시행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좋겠다. 노인요양원의 어르신이 돌아가실 경우, 덕운사에서 49재를 지내는 등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시완 기자

부처님과 인연의 싹 띄운 천진불

“보살계는 성불의 지름길이자 팔만사천법문의 요체”



부산 대광명사는 4월 17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어린이 특별 수계 법회를 병행했다.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 여 앞두고 부산 각지에서 어린이·청소년 등을 위한 수계법회가 잇따라 봉행됐다.

17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열린 ‘유아·어린이·청소년 수계법회’에서는 대광명사를 제적사찰로 둔 신도의 자녀 29명에게 수계했다.

부산 해운대구 도심포교도량 대광명사(주지 목종)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불심을 심어주기 위한 특별한 수계법회가 열렸다.

목종 스님은 “수계를 받은 어린이들은 부처님과 인연의 싹을 띄운 것이다. 성장 후에는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아

불도의 길을 걷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4월 15~17일 제111회 범어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수계산림에는 전계대보살 흥교 스님, 갈마아사리 선래 스님, 교수사리 통광 스님이 삼화상을 맡았다. 산중 대덕스님들이 칠증사로 4000여 수계보살에게 대승보살이 지녀야 할 ‘10중 대계’와 ‘48 경계’의 실천을 강조했다.

정여 스님은 “보살계는 성불의 지름길이며 팔만사천법문의 요체인 심지법문을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에게 전하기 위해 설한 수행법 중 최상의 덕목이다”라고 강조했다. 범어사는 1904년 성월 스님이 금강계단을 설치하며 처음 보살계산림을 일으킨 이래 매년 보살계 수계산림을 열고 있다. 박시완 기자



4월 17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27회 연꽃문화제에서는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경연대회에 이어 염주알 꿰기, 풍선인형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이 이어졌다.

2011 부산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발대식

부산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백명숙)가 4월 16일 부산학성문화교육회관에서 ‘2011년 신입생 환영회 및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발대식에서 중등부 회장에 범어사 지부 김희지 양이, 이정현(금정중3)·정호영(동해중3) 군이 각각 부회장으로 임명됐다. 고등부 회장에는 나상준(해사고2) 군이, 김영웅(해사고2) 군, 서은진(부산마케팅고2) 양이 부회장에 임명됐다.

부산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5월 길거리봉사활동과 문화탐방, 7월 전국연합캠프, 8월 일본 사가현에서 한일청소년 국제교류 등 주요 사업을 진행한다. 박시완 기자

‘오늘은 천진불 세상’

부산 어린이법회 소속 어린이불자 450명 참가

천진불들의 축제 제27회 연꽃문화제가 450여 어린이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됐다.

어린이불자 4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축제에서 글짓기와 그림 부문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총 25명의 어린이에게 대상인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장상’과 특별상인 ‘부산광역시장상’ 등을 비롯한 총 5개 부문 25개 상이 수여됐다.

동련(이사장 심산, 흥법사 주지)은 4월 17일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제27회 연꽃문화제를 개최했다.

동련과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범어사 주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산지구(회장 효선·공덕원 주지),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가 합체한 이번 행사에는 예년에 비해 150여 명이 더 늘어 부산 어린이법회 소속

동련(이사장 심산, 흥법사 주지)은 4월 17일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제27회 연꽃문화제를 개최했다. 동련과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범어사 주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산지구(회장 효선·공덕원 주지),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가 합체한 이번 행사에는 예년에 비해 150여 명이 더 늘어 부산 어린이법회 소속

효선 스님은 “올해에는 부모님들의 참여도가 높다”며 “어린이법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린이법회별로 자모회가 구성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완 기자

<정정합니다>
제832호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감삼의 대한불교교사대학 교무처장은 제4회 불교어린이청소년지도자연수에서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부처님 어서 오소서!” 부산시불교연합회 봉축점등식

불기 2555년 부산연등축제 시작을 알리는 ‘봉축점등식’이 봉행됐다.

4월 15일 부산역광장 일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화산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삼광사 주지)과 정각 상임부회장(일봉선교 종정, 미통사 회주) 및 해남시 부산광역시, 김정은 한나라당부산시당위원장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시완 기자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 국내특허 제0751485호
·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양지곡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